

❓ 시에라리온, 궁금한 이야기

에볼라 바이러스, 시에라리온은 괜찮은가요?

최근 지구촌이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에볼라가 창궐한 서아프리카의 3국인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은 바이러스 전원으로 격리 구역으로 설정되었고, 각국 항공사들은 에볼라 확산을 우려해 발병국에 대한 항공편 운항을 속속 중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약 2,600여명의 감염자 중 50%가 사망하였으며, 시에라리온에서는 900여명의 감염자 중 400여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는 급성 열성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약 2~21일 간의 잠복기 후 두통, 근육통, 발열, 구토 증상이 나타나며 전신성 출혈로 진행되어 사망하게 되는 중증 감염병입니다. 초기 증상은 말라리아, 장티푸스와 같은 다른 질병과 비슷하여 감염 여부를 바로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체액(혈액, 땀, 배설물, 침)을 통해서만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치사율이 약 60%~90%인 반면 아직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아 예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2002년 미국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 에볼라 바이러스

8월 1일 시에라리온 대통령은 에볼라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8월 4일부터 장거리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교통을 통제하고 있으며, 주변 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감염자라는 낙인이 두려워 가족들이 에볼라 환자를 숨기는 탓에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에볼라 환자를 숨겨준 사람을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밀알복지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위치한 프리타운 워털루 지역 주민들도 걱정과 불안 속에서 최대한 조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외출 시 신체 접촉을 피하기 위해 장갑을 끼고, 라디오를 통해 바이러스 전파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활동 중이었던 이순복 프로젝트 매니저와 이찬 파견간사는 현지 직원과 교사들에게 에볼라에 관한 교육 및 아동지원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마치고 8월 중순 한국으로 귀국한 후 전화나 메일을 통해 현지 스태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학 중에 있는 아동들은 보통 9월 중순에 개학하지만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시기가 연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학을 한 후 교사들은 에볼라 바이러스에 관한 소식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학교를 철저하게 소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현재로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기까지를 6개월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 우리 결연아동들과 가족, 그리고 아프리카와 전 세계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희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알립니다!

- 1 후원해주시는 결연아동의 감사편지는 2015년 2월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 2 밀알복지재단에 도착한 회원님의 편지는 번역 과정을 거쳐 2014년 12월에 사업장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특정한 날 아동에게 편지가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경우 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야기

시에라리온 사업장 소식

꿈꾸는 새싹들 이야기

사업장 마노고야, 호프, 말람베

대부분의 아이들은 하루에 아침 겸 점심 식사와 저녁 한 끼로 총 두 끼의 식사를 합니다. 그마저도 작은 빵 하나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2013년 11월부터 결연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점심시간 마다 아이들에게 현지식(쌀과 카사바 잎으로 만든 소스를 섞은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지원으로 급식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출석률도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급식
지원



말알
Day



사업장 마노고야, 호프, 말람베

지난 2013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하여 시에라리온 전 사업장의 결연아동을 대상으로 제 1회 말알 Day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래 부르기, 퀴즈 대회와 같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행사에 참가한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방과 교복, 체육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은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서로 간의 결속력을 다지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말알 Day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겠습니다.

결연아동
가정방문



사업장 마노고야, 호프, 말람베

시에라리온의 문화와 정서 그리고 가정 형편상 이 곳 아이들의 학교 출석률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회원님께서 후원해 주시는 결연아동이 결석을 하게 되면 적절한 서비스와 물품을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의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장기 결석 중인 결연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파견 단원과 현지 교사는 아동의 부모님을 직접 만나 아동이 받아야 할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아동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아이들의 출석률을 향상시키고, 회원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장 마노고야, 호프, 말람베

2014년 7월, 3개 사업장에서 약 1,000여명의 아이들은 6일 동안 매일 2과목씩 기말고사 시험을 보았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매 학기 기말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평균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거나 결석이 잦은 아이들은 유급을 시켜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말고사를 통해 상급학교 진학 여부 및 유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느 때 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난 후, 아이들은 한 학년을 마무리하고 방학을 맞이하였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방학을 잘 보내고 다음 학기에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기대해봅니다.

기말고사
실시



체육복 및
학용품
지급



사업장 말람베

2014년 1월, 새 학기를 맞이하여 말람베 사업장의 결연아동을 대상으로 체육복과 학용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옷을 구입하기 어려워 교복이나 체육복을 일상적으로 입고 다니는 시에라리온의 아이들은 새 체육복을 받자마자 같이 입고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또한 부족한 필기도구 때문에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필기를 받아 적지 못하고 눈으로 따라 읽기만 했던 아이들에게 학용품이 전달되면서 더 나은 수업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회원님의 지원을 통해 아이들의 삶과 교육의 질이 더욱 향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에라리온에서 온 편지



안녕하세요. 먼저 시에라리온의 아이들을 후원해주시는 회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감사드립니다. 시에라리온은 7월부터 시작 된 우기로 한국의 장마와 같이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우기에 맞춰 방학이 시작되지만 올 해는 서아프리카에 퍼진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방학 일정이 미리 앞당겨지기도 했습니다. 이곳 아이들은 회원님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라리온의 열악한 교육 환경이 개선되고,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부모나 환경이 정해준 길이 아닌 자신 스스로의 멋진 꿈을 가지고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회원님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에라리온 파견간사 이찬 드림

COMING
SOON

새싹들의 다음이야기

▶ 새 학기 시작

2014년 9월,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출석률 관리를 강화하고
아동들의 생활기록부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

▶ 태양광 랜턴 지급

2014년 11월,
태양광 랜턴 지급을 통해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수준의 향상 기대

▶ 도서관 개관

2014년 12월,
영어로 된 다양한 장르의 책을 공수하여 호프, 마노고야 사업장
아이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도서관 개관 예정